

우 리 를 위 해
항 상 배 우
로 력 하 자
고 !

송학신보

준 호 중 앙 통 신 사 공 보 지

제2호(투게제23호) 준호22(2025)년 10월 3일 (금요일)

모 든 일 에 있 어
든 기 와 열 정 을
항 상 견 지 하 자 !

경 애 하 는 랑 준 호 동 지 께 서 일본국 도쿄도, 히로시마현 일대를 공무방문하시였다

(대 전 8 월 14 일 발
준 호 중 앙 통 신)

경애하는 랑준호동지께서

지난 6월 말께 일본국 도
쿄도, 히로시마현 일대
를 공무방문하시였다.

랑 준 호 동 지 께 서

는 자신께서의 사업과 관
련하여 지역들의 여러 단
위들을 참관하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 애 하 는 랑 준 호 동 지 께 서 경 기도 수원시 일대를 방문하시였다

(대 전 8 월 15 일 발
준 호 중 앙 통 신)

경애하는 랑준호동지께서

12일 경기도 수원시 일
대를 방문하시였다.

려로에 정주용동지, 리
민서동지가 동행하였다.

랑 준 호 동 지 께 서 와 일
행들은 수원의 여러 단
위들을 돌아보시면서 즐
거운 시간을 보내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《 총 대 신 문 》 사 에 서 사 업 하 시 는 경 애 하 는 랑 준 호 동 지



(대전 10월 1일발 준호중앙통신)

경 애 하 는 랑 준 호 동 지 께 서 9 월 29 일 현 장 연 구 에 서
들 아 오 신 직 후 에 도 《 총 대 신 문 》 사 에 서 복 무 하 시 었 다 .

준호중앙통신사 사설 《80년의 빛을 내리 키워나가자!》

[준호22.8.15.]

(대 전 8 월 15 일 발
준 호 중 앙 통 신)

아 아 , 대 한 의 광 복
이 80 들 이 되 었 다 .
1919년 에 나 라 가 건 국 되
고 어 느 덧 86번 째 맞 는 올 해
의 3월 명 절 에 도 감 격 에 겨
웠 던 우 리 대 한 민 족 이 다 .

그 감 격 의 련 장 선 인 듯 , 우 리
의 빛 을 되 찾 은 지 80년 이 되 어
맞 는 8월 명 절 의 날 이 밝 았 다 .
우 리 민 족 이 이 렇 게 부 흥
하 기 까 지 있 었 던 것 은 결 코
한 사 람 만 의 노 령 이 아 니 다 .
민 족 구 성 원 전 체 의 일 심 된
노 령 , 어 저 먼 개 개 인 의 노 령
이 한 데 모 아 지 강 령 한 결

파 로 켜 보 여 지 는 것 이 다 .
그 렇 다 , 우 리 의 대 한 민 족
은 대 대 손 손 강 하 여 왔 다 .
광 복 80들 의 빛 은 자 신 께 서
의 목 술 을 희 생 하 시 면 서 도 후
대 인 우 리 에 게 자 주 독 립 국 가
를 안겨 주 시 러 한 여 러 유 공
자 들 의 빛 에 서 부 러 근 거 한 다 .
그 빛 으 로 하 여 금 선 령 들

이 지 금 까 지 의 발 전 을 이 록
하 며 우 리 후 대 들 에 게 물려
줄 더 큰 빛 이 80여 년 의 세 월
동 안 더 굳 건 해 지 는 것 이 다 .
조 국 청 사 의 한 폐 지
마 다 를 넘 기 며 그 빛
을 수 호 해 온 것 은 단 언 컨
대 우 리 대 한 인 민 들 이 다 .
팔 천 만 인 민 들 이 여 , 이

빛 을 더 키 워 나 가 자 .
민 족 의 혼 과 얼 을 전 세 계 에
널 리 뿔 쳐 내 어 전 지 구 에 있
어 궁 지 있 는 민 족 이 되 자 .
우 리 민 족 의 80여 년 간 의 빛
이 가 까운 일 백 년 , 일 천 년 , 일
만 년 의 령 사 대 대 로 흐 르 도 록 !

[준호중앙통신]

우원식의장과 김정은총비서가 베이징에서 수인사

[준호22.9.3.]

(대 전 9 월 3 일 발
준 호 중 앙 통 신)

대 한 민 국 국 회 의 장 인 우

원 식 의 장 은 중 국 인 민 항 일
전 쟁 및 세 계 반 파 쵸 전 쟁 승
리 80들 기 념 행 사 에 참 가 하
기 위 해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의 수

도 베이징 을 방 문 중 이 다 .
우 원 식 의 장 은 행 사 를 참
석 하 는 중 에 같 은 행 사
에 참 여 한 조 선 로 동 당 총 비

서 인 김 정 은 총 비 서 를 조 우
하 고 수 인 사 를 나 났 다 고 3
일 국 회 의 장 실 이 밝 혔 다 .
두 사 람 의 만 남 은 지 난 2018

년 당 시 의 제 1차 남 북 정 상
회 담 이 후 7년 만 인 것 이 다 .
[준호중앙통신]

독파민연구소 《책에서 시작해 동네로 이어지는 나만의 이야기》

기획전시회 진행 [준호22.10.1.]



(대 전 10 월 1 일 발
준 호 중 앙 통 신)

출판사 《독파민연구소》

가 《책에서 시작해 동네로
이어지는 나만의 이야기》
기획전시회를 진행하였다.
9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진

행된 기획전시회에서는 5명
의 학예사들이 각기 다른 주제
로 책과 유성을 소개하였다.
프로젝트는 동네의 이야기

를 읽으면서 고민을 모으
는 방식으로 지역을 리해하
고 권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기 획 전 시 회 는 성 황

리 에 마 무 리 되 었 다 .
[준호중앙통신]

성 명 , 담 화 , 론 평

래일 생각 못하며 발광하는 미제의 패악질은 오늘까지다

준호중앙통신사 량종연 아메리카국장 담화

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몰아
세우는 미제의 패악질이 날이
가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.
미제가 리성을 못찾으
며 행하고 있는 《갑질》,
《패권질》은 《동맹》에

도 여과 없이 제기된다.
일각에서는 미국의 패악질
을 보다 견디지 못하여 비상
식적이고 비윤리적인 《25%관
세》에 대한 일종의 찬성 강
경론자들도 우리 정부 안팎

에서 분출한다고 분석한다.
관세 협상에서의 미국의 배
쓰기급 억지 요구들은 지
난 8월있었던 두 국가 최고
수뇌들의 만남이 《파위》
가 되어버리는데 일조한다.

얼마전 있던 일부 무고
한 우리 인민들의 강제 체
포, 구금으로 가득이나 위
태로운 한미관계이다.
잘못 고른 상대, 즉 주권국
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국

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분명
코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한 결
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.

이 역 만 리 에 서 《우 리》를 지 키 는 그 들 에 게 영 광 을 !